

지역 메아리

김제시 성덕면장 현장행정 실시

김제시 성덕면장(신형순)은 2018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현안사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면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마을 사랑방인 경로당 26개소(그룹-홈)에서 마을주민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읍초라드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농한기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맞추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면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룹-홈을 점검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서로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겨울철 화재 및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변경 운영비 지원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2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다문화 및 일반인 가정 유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과 연계하여 실시된 교육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마련 된 자리이다.

내용으로는 아이를 공중 던져 올려 안거나 팔을 잡고 빙빙 돌리지 말기, 전기 콘센트 주의, 아기 재울 때 얼드려 재우지 않기, 이물질로 인한 기도 막힘 등 다양한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교통안전교육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22일 오전 9시30분 김제교육지원청 4층 영재교실에서 김제교육지원청소속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20명은 김제교육지원청 운전직렬 공무원으로 평소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공무원이다.

이날 교육시간에는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사례,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 등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하였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준수사항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향토문화재 5건 지정

완주갈동유적 · 남관진 창건비 · 용암리 지석묘군 · 비비정지 · 망우당행장

완주군이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완주 갈동유적 및 남관진 창건비 등을 포함한 5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

22일 완주군은 향토문화재 지정대상 심의결과를 군보에 지정고시하고 완주 갈동유적, 남관진 창건비, 용암리 지석묘군, 비비정지, 망우당행장에 대해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완주 갈동유적은 한반도 남부 초기 철기시대의 최절정기 문화 유적이다. 매장 영역에서 초기철기시대 무덤이 최대 군집을 형성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거푸집 부장품이 유구 내에서 확인되는 등 마한(馬韓)의 성립과 정개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유적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

남관진 창건비는 조선 후기 전주 남쪽에 설치됐던 군사시설 남관진의 창건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으로 지금은 원형을 잃은 남관진의 창건 경유와 규모 등의 기록이 남아 있어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용암리 지석묘군은 봉실산을 배경으로 총 37기의 지석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 중 1기의 상석에 150여개 이상의 성혈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세력의 규모와 신앙생활 등을 엿볼 수 있는 고고민속학적 가치가 인정돼 향토문화재로 지정됐다.

비비정지는 예로부터 '비비낙안'과 연관된 명승지로 전라관찰사 서명구



완주군이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완주 갈동유적 및 남관진 창건비 등을 포함한 5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

는 비비정 중수기에 비비정이 위치했던 '비산(飛山)'이 호남 처음 길에 제일 습지다'고 기록하는 등 명승지로서 역사성과 경관성이 인정됐다.

망우당행장은 2차 왕자의 난 이후 완주군으로 낙향해 삶을 보냈던 회안대군 이방간의 생애를 기록한 사적으로 완주군에서의 족적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 대표 인물 회안대군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높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향후 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명명해 방치되거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지 않은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훼손과 망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은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심도 있는 학술사업들을 병행해 지역 역사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 국가 및 도 지정과 완주군 향토문화재를 포함해 총 54개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태양광·열 설비 설치 소형 주택지원사업 실시

완주군, 가구당 설치비 120만원 지원

완주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소형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완주군은 올해 1억원을 들여 태양광 1kW이하 기준으로 가구당 설치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난 2013년도부터 소형 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개인이 설치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완주군 소재 기존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2018년 준공예정)여야 한다.

희망자는 공고문에 게시된 시공업체를 선정해 내달 말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완주군은 신청서류를 심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230-2424)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이다"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날 완주군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진행해 총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 KSI인증제품으로 설치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 책임질 혁신의 새틀 째 것"

나유인 민주당 김제 부위원장, 김제시장 출마 선언

나유인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 부위원장은 22일 오전10시 30분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올해 초 '김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IT·학술·예술·종교·관광 등 문화콘텐츠가 융합한 '농·생명 문화도시' 건설을 김제 미래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한바 있다.

'농·생명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5대 전략으로는 ▲김제 쌀 및 종자 산업 스마트 고도화 ▲국내 최대 글로벌스마트 농·생명산업 R&D단지 조성 ▲새만금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육성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 실현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 등을 담았으며, 이를 뒷받침 할 10대 핵심프로젝트, 30개 세부실천과제는 추후 단계별로 발표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영예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상정보건진료소 소년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 제 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상은 간호사업 발전을 위하여 공이 큰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시상식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소년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32년 4개월 동안 김제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해왔으며 밝고 근면한 근무자세로 보건업무 수행에 모범을 보였다.

특히 건강증진실 개설, 방문건강센터 운영, 운동생활 실천지도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온정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직장 내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씨는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속 보건진료소 동료들이 받은 상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앞으로 더 성심을 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통해 주민을 행복하게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각 보건진료소의 실정에 맞게 노인 정서지원, 대시중후군 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래교실, 요가, 치매예방체조, 종이접기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농촌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